가계부채 DOWN

증세 없는 복지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박근혜 정부 3년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삭감, 보육대란... 결국 증세 없이는 복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얄팍한 월급에 세금 더 내라면? 복지도 좋지만 그게 가능한 걸까요? 세금 더 내야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재벌입니다. 국민총생산 대비 총조세부담률은 23.9%, OECD 평균인 34.1%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덜 내고 가난한 사람은 간접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OECD 평균만 걷어도 추가되는 162.9조. 복지국가로 다시 출발하기 위해 조세체제부터 바꾸겠습니다.**

재벌 증세 1

재벌에게 증세를

1. 법인세 최고세율 30%, 비과세 철폐로 실효세율 인상
2. 이자, 배당, 임대소득 과세강화와 주식양도소득 전면과세 등으로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을 OECD 평균 수준(8.6%)으로
3. 상속 증여세 강화
4. 재벌대기업 대주주에게 자본보유세 부과

박정희정권 이래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간접세 중심의 저부담 조세체제, 재벌만을 위한 조세체제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재벌증세로 총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만든 167조로 공공서비스를 확립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합니다. **재벌기업 대주주의 주식에 자본보유세를 부과하여 생계형 부채를 탕감합니다.**

재벌 증세 2

재벌증세로 재정정책 실시

1.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복지 확충
2.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3. 생계형 부채탕감

재벌에겐 자본보유세! 국민에겐 기본소득 30만원!

재벌 증세 3

재벌증세로 경제체제 전환

재벌증세

⌄

조세체제개혁

⌄

재벌만 좋은 수출주도성장에서 수출-내수 균형 경제로 전환
빚에 허덕이는 부채의존소비에서 소득기반 경제로 전환

조세체제를 바꾸는 것은 한국 경제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노동당은 수출 잘하겠다고 임금 줄이고 비정규직 늘리는 박근혜표 노동개악에 반대합니다. 내수기반 없이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시대를 버텨낼 수 없습니다. 재벌증세로 공공서비스가 확립되고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부채의존 소비에서 소득에 기반을 둔 소비로 바뀌게 됩니다.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 전환점은 임금억제와 비정규직 확대가 아니라, 정확하게 [재벌증세]입니다.**

노동당은 재벌증세 조세체제와 소득기반 경제모델 전환에 동의하는 국민들과 함께 **〈재벌증세 시민연합〉**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임금•불안정노동에 의존하며 재벌만 배불리는 경제체제를 끝내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운동을 꾸준히 펼쳐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바랍니다. 더 크고 강하게 희망의 끈을 연결해 주십시오.

삶은 사람답게, 나라는 나라답게
대한민국 리셋(Reset)

노동당 중앙당 ☎ 02.6004.2000 ✉ laborkr@gmail.com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F

노동당

재벌세금 UP